

## 하나님이 부르신 큰 용사

성경 사사기 6:11-18

## 신 67 쉼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거부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여롭바알이 되게  
하소서.

## 찬양

## 1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은혜의 찬양 203장)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 2 나는 예수 따라가는(찬송가 349장)

- 1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보리오)
- 2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때까지)
- 3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라(누리라)



**후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  
 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 11 여호와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  
하더니
- 12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 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  
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 15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  
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  
징을 내게 보이소서
-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  
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 본문 배경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11절). 그때 여호와와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12절). 천사의 말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고 선언한 천사에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13절).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면 왜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산이나 동굴, 요새 등에 은신처를 만들어서 생활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까지 망치며 생존을 위협했습니다(삿 6:3~4).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기드온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문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며, 자신은 형제 중에서 가장 어리다고 말하며(15절), 자신이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꼭 그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 대화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표’를 달라고 했습니다(17절). 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제물이 불타는 것을 본 기드온은 두려워 떨며 곧장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는 뜻을 지닌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24절).

## 말씀 관찰

### 1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찾아와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14절)

**답**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해설**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눈치를 보며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삿 6:11). 그때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12절).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14절). 기드온의 인생 계획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버킷리스트에 ‘민족구원’이란 항목은 없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에 들어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입니다.

### 2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3, 15절)

**답** 첫 번째 반응은 원망이고, 두 번째 반응은 거절입니다.

**해설**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원망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망쳐 놓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13절).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14절). 두 번째 반응은 거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15절). 환경을 탓하고 나의 부족함만 묵상하면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모든 조건이 불가능해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16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 말씀 적용

### 1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눠 보세요.

### 2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히 알지만, 부족한 나 자신을 보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나요? 그 내용을 나눠 보세요.

## 1-4 여호와와 사자가

### 사사기 6장 12절

♩ = 112

작곡 유라혜

G7 Eb G7

여 호 와 의 사 자가— 기 드 온 에 게 — — 나 타나 이르되

5 C G D G

큰 용 사 여여 — 호 와 께 서 너 와 함 — 께 — 계시도 다 하 매

9 D7 G

사 사 기 육 — 장 — 십이절 아멘 —

Copyright © 2022 유라혜 Administered by KwangsooMedi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 가정예배 기도문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